

눈 앞에 나타난 삶에 뛰어들어!

동덕여자대학교
k2590065 양화연

오차대 입소 첫 날 타키 플라자에서 여름 옷을 입고 피자를 먹었는데요. 어느 새 겨울 옷을 입고 마지막 발표회를 앞두고 있네요. 일본에서의 반 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.

첫 해외생활이자 자취를 이 곳에서 하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. 도시의 적당한 거리감, 1인분으로 파는 식재료들, 영화관에 걸려있는 애니메이션, 여행 간 마을의 맛난 음식점들... 전부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 교환학생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

오차대에서는 유학생 수업과 지리학, 서예, 일본어교육 수업을 들었습니다. 원래 대학에는 없거나 궁금했던 분야의 과목을 많이 담았는데 덕분에 다채로운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. 한자 서예를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운 좋게 마츠모토 선생님의 서예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영원하던 수업이라 그런지는 몰라도, 도구를 사던 순간부터 포트폴리오를 다 모으던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재밌었습니다. 일본사정연습2에서는 오차대 초등학교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어 즐거웠고, 니시자카 선생님의 '말과 세계'에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디스커션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또 국제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유학생 문화체험 교실도 즐거웠습니다. 특히 다도부와 거문고お箏 동아리 부원분들의 멋진 퍼포먼스가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잘 가르쳐주셔서 처음인데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어디 가서 일본 거문고로 '사쿠라'를 쳐 보겠어요!

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이곳에서 만난 유학생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. 혼자 전시 보러 다니는 것도 재밌었지만 같이 단풍철에 단풍보러 가고, 겨울철에 스케이팅 타러 가니 더 재미있었습니다.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같은 이벤트들도 다 함께 즐기니까 정말 특별한 날이 되더군요. 재밌는 일이 많았지만, 특히 「백미터」를 보고 돌아온 날 같이 운동장에서 준비땅 달리기 시합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

여러모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문화 차이로 힘들거나 우울한 날도 있었지만 모두 양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돌아가서도 추억 잘 간직하겠습니다! 그간 도움주신 국제과 오노상과 담당교수 신지연 선생님,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, 튜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.

